

“나도 남도 돈오하기를 바라며”

백파사상연구, ‘수선결사문’ 펴내

백파공선(1767~1852) 스님은 조선 후기 화엄종주로서 조선 선문의 중흥주이다. 스님의 저서 <선문수경>은 선의 제 종파의 특색을 밝힌 제 논서이다. <작법구감>은 엄밀 작법을 상세히 밝힌 의례의 규범서이다. 백파 스님의 저서 가운데 <수선결사문>은 <선문수경>을 저술하기 이전에 결성한 수선 결사의 지침서로 수선의 방법과 이념을 기록한 것이다.

백파사상연구소(소장 선일)는 2월 16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에서 <수선결사문> 출판기념회를 봉행했다. 책은 <수선결사문>을 최초로 한글로 해석한 것이다. 번역은 김호귀 동국대 HK연구교수가 작업했다.

책은 20장으로 구성돼 있다. 각 장은 스님이 말하는 선수행의 요체와도 같다.

1. 진정한 안목을 갖추는 것이 참학의 요체이다.
2. 정변(正辨)과 정안(正眼)으로 정신(正信)을 발생시킨다.
3. 모든 방편 가운데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4. 간략하게 공안을 인용해 모범을 보인다.
5. 먼저 적적(寂寂)으로 연려심을 다스린다.
6. 바로 성성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참구한다.
7. 먼저 정좌를 하고 그것을 점차 사위의까지 적용한다.
8. 염불을 잘 요건해 궁극적으로 수심(修心)할 것을 권장한다.
9. 권(權)·실(實)을 대변해 간절하게 수심

- 을 권장한다.
10. 세간의 무상을 꾸짖어 간절하게 명리를 책망한다.
11. 이리(二利)를 성취토록 하고 그 공덕을 보여 준다.
12. 정력(定力)이 없이는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13. 남자에게 진정한 행리(行履)를 제대로 보여준다.
14. 오직 인간세상만이 발심하고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5. 전세에 불신했던 원인에 대해 거듭 논한다.
16. 믿음을 지닌 자는 상근기임을 받들한다.
17. 이미 선정을 믿었으면 구경에 깨침을 보아야 한다.
18. 세 부류를 대변해 출가의 진정한 고리를 드러낸다.
19. 백파 자신의 생각을 간략하게 서술해 함께 수선하기를 권장한다.
20. <수선결사>의 규약

행사에는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 등 석전 문도회 스님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재무부장 도문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백파 선사는 율 화엄 연을 모두 갖춘 해동의 선지사이었다”라고 말했다.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은 “백파사상연구소 설립 등 늦게나마 제자들이 발심해 스님을 선양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중단 발



백파사상연구소 소장 선일 스님은 2월 16일 <수선결사문> 봉정법회에서 책의 저술은 백파 스님의 보살행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축하했다.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은 “믿음이 계·정·혜 삼학의 바탕이다. 백파 스님은 신심을 일으키는 데에는 염불이 제일이라는 생각에 <작법구감>을 저술해 후학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백파사상연구소 선일 스님은 “<수선결사문>은 백파공선 스님이 대중의 간청으로 산 속에 들어가 엮은 책이다. 그것으로 스님 자신도 돈오를 추구했고, 남들에게도 도우미기를 바라는 뜻으로 저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일 스님은 “<수선결사문>을 읽고 많은 눈푸른 남자들이 나와 한국불교를 세계선 불교의 중추국으로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파공선 스님은 고창 선운사에서

출가해 지리산 영원암 설파상인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았다. 백양산 운문암, 구암사 등지에서 법회를 열어 선문의 중흥에 기여했다. 말년에는 화엄사에 주석했다. 입적 후 제자들이 구암사에 탑을 세우고 선운사에 비를 세웠다. 저서로는 <정혜결사문> <육조대사법보단경요해> <선문염송사기> <작법구감> 등이 있다.

조동성 기자 cstana@hyunbul.com

수선결사문
백파공선 지음
김호귀 옮김
도서출판 선운사
1만5000원

어둠을 밝히고, 무명을 밝히고

불교중앙박물관 흥선 스님이 들려주는 석등 이야기

불교에서는 어둠을 무명(無明)이라고 한다. 인간의 밝은 본성을 가리고 있는 타파해야 할 무명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무명은 곧 무지이다. 불교에서는 중생이 범하는 모든 오류의 출발점을 무명·무지라고 한다. 이것이 온전히 역전된 것이 밝음을 뜻하는 명(明)이다. 밝음, 빛, 지혜가

육각석등은 통일신라 후기에 등장해 고려 전반까지 유행하다 사라졌다.

사각석등은 고려시대 등장해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고려 말부터는 장명등으로 옮겨가 왕의 능이나 귀인·사대부의 묘에 등장한다.

책에는 백제·신라·발해·고려·조경주 등 시대별로 석등이 구분돼 있다. 저자는 이를 또 다시 간주석 등 세 부기준에 따라 분류해 설명한다.

백제의 석등에서는 ▷익산 미륵사터 석등재 ▷익산 제석사터 석등재 ▷부여 가탑리 석등재를 적고 있다.

신라의 석등에서는 ▷경주 분황사 석등재 ▷경주 불국사 대웅전 앞 석등 ▷경주 불국사 극락전 앞 석등 ▷청도 문묘사 금당 앞 석등 ▷경주 원원사터 석등 ▷봉화 축서사 석등 ▷남원 실상사 백장암 석등 ▷보은 법주사 사천왕석등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등 30기를 담고 있다.

발해의 석등에서는 ▷발해 상경 석등을, 고려의 석등에서는 ▷부여 무량사 석등 ▷논산 관촉사 석등 ▷김천 적지사 대웅전 앞 석등 ▷공민왕릉 석등 등 21기를 예로 풀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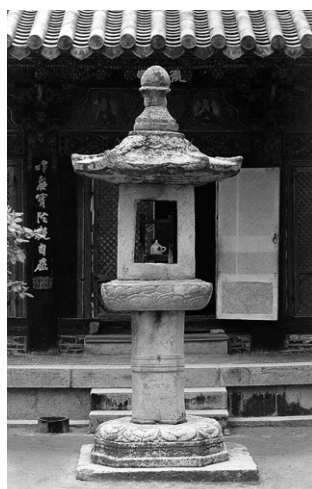
조선의 석등에서는 ▷여수 흥국사 기록관철 석등 ▷함평 용천사 석등 ▷양산 통도사 개산조당 ▷금강계단 앞 석등 등 8

기를 적고 있다. 흥선 스님은 1974년 직지사로 출가해 해인사 강원을 마치고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했다. 직지사 성보박물관을 역임하고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장·문화재위원이다.

조동성 기자



불교에서 '석등'은 부처님의 가르침 상징 사찰 석등 시대별 분류



석등 흥선 지음 불화 4만5000원

불교중앙박물관 흥선 스님이 펴낸 <석등>은 석등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책에서 석등의 각 부재를 상세히 설명하고, 한국 사찰의 전통 석 등 70여 기를 추려 시대별로 나누고 그 석 등들의 연원과 미술사적 해석 등을 적고 있다. 책의 말미에는 280여 기의 전체목록을 수록했다.

저자는 석등의 부재 가운데 상대석(연꽃잎으로 장식된 돌) 위에 놓여 그 안에 등불을 켤 수 있도록 마련한 화사석(火舍石)의 모양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에 따라 팔각석등·육각석등·사각석등으로 설명한다.

팔각석등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등장해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주류를 이루는 석등이라는 것이 저자의 말이다. 주로 신라시대에 많이 조성됐다.

인도 이야기서 삶의 지혜를 얻다

인도 명상가의 인생 어드바이스



진정한 나를 찾다
인드라 초한 지음
나카지마 다카시 역음
양영철 옮김
경성라인
1만3000원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한테서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 배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여러 차례 반복한다. 지난 날의 경험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다보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은 당연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 혹은 학력이 높은 사람들의 의

견을 존중해서 그들의 의견을 자신의 생각보다 중요시하기 쉽다. 자신의 직관을 경시하고 남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것은 겸손하다기보다는 비굴한 태도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이다.

‘실수하고 싶지 않다.’
‘창피당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
‘철저히 준비해서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준비에만 시간을 쓰는 사람도 있다.

성공한 사람은 좋은 소질, 기회, 장소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 그들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올린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인생은 용기와 계산을 요구한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생이라는 큰 승부에서 한 번은 모험을 걸어야 한다. -책에서

책 <진정한 나를 찾다> 부제 ‘빛나는 것이라 모두 보석은 아니다’는 인도의 음유시인이자 명상가인 인드라 초한의 삶의 철학과 지혜가 담긴 책이다. 인도는 명상과 사유를 통해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나라이다. 책에는 인도의 향기가 풍기는 무척 짧은 이야기들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참된 진리의 세계는 넓고도 깊다.

책을 나를 찾는 과정은 사랑 지혜 가능성 성공 미래 인생 마음 인격 운명 행복의 10장으로 나누어 각 장마다 삶의 원초적이

고 가장 기본적인 철학을 담고 있다.

인간은 자연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의 은혜를 듬뿍 받으며 살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 대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한 누구에게나 인생은 열린다고 말하고 있다.

대자연의 법칙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자는 말한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것이 대자연의 법칙에 따른 삶이라고 해 세계의 최고봉은 ‘정복’이 아니라 ‘자연과 일체’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책의 이야기들은 송고한 대자연을 조절하기에는 인간의 지혜가 너무나 천박하고 보잘 것 없는 나약한 존재여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허하게 살며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알려준다.

이 책을 읽을 때는 모든 내용을 소선택 읽듯이 단숨에 읽지 말기를 당부하고 싶다. 한 장 한 장의 내용을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면 의식 밑바닥에 잠긴 진실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조동성 기자

범음범패 학인모집

부처님의 말씀이나 계승을 노래(천보음악)로 만들어 보는 이나 듣는 이로 하여금 기쁨 가득한 환희심을 일어나게 한다면 그는 이미 도를 이룬것과 같다(법화3부경 제1권 방편품 제2장39절), 옛날부터 전래되는 범음범패의식을 초급, 중급, 고급 수련과정을 통해 능숙해지도록 도와드립니다.

- ◇ 자 격 : 스님 및 사발 염의하실 예비스님
- ◇ 예비소집 : 2556(2012)년 3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 개 강 일 : 융화복전 3039년 남전열반 2556년(2012년) 3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지장사 2층 범패의식교육원
- ◇ 수 업 일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핵심경전 집중강의(초발심자경문부터), 중식 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이론 및 소리실기 + 작법 2시간실기
- ◇ 과 목 : ◆바 라 작 법 = 천수, 사다라니, 관옥화외계, 요잡, 춤부다라니(예수재전점만시 바라작법) ◆착복무작법 = 도량계, 향화계, 다계, 음남, 귀경이, 운심계, 오공양, 법고무 ◆사물장단은 기본 국악관악기 : 산조대금, 소금, 단소, 향피리, 태평소, 통소다루기 (작어, 영가축원, 생축시 배경음) 의향 있으면서 학인에게만 전수 ◆법당복연주타법 : 송주성타법 3가지의 에드립타법 7가지 합10가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등 산사음악회용 찬불국악리듬 ◆재 의 식 반 : 49재, 천도재, 기재, 상용영반, 산신제, 해상용왕제, 시다림 등 ◆대재의식반 : 영산대재, 생전예수대재, 무차수륙대재, 국가적위령대재 등 ◆이운의식반 : 삼신이운, 불,사라이운, 고승사라이운, 대종사이운, 설주이운 등 ◆각종 점안의식반 : 각종불상, 보살상, 신장, 나한, 탱화, 가사, 전 점안의식, 복장지의식 등 ◆핵심 경전 강의 : 의식집에 있는 경전의 핵심인 열반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아미타경 등의 사구계를 영가와 산자에게 들려줘야 함에 이들 경전의 핵심만을 추려서 학인의 이해를 도와 지식을 증장해야 의식을 집전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

강 주 : 교육원장 흥인 스님 010-5325-8123, 053-632-0078
문의전화 : 지장사 대구 포교당주 학장 범성 스님 010-9243-0113

본원중 부설 불교의식대학 범음범패 제 7기 학인모집

- ▣ 교육기간 : 1년
- ▣ 입 교 식 : 2012년 3월 2일
- ▣ 수업일시 : 주 1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6시
- ▣ 교육내용 : 기초 도량석, 종성, 아침, 저녁, 예불, 거불, 복청계, 요잡바라, 도량계, 다계작법, 49재 및 천도재, 각단 불공 및 사찰의식 전과정.
- ▣ 입교자격 : 불교의식에 관심있는 스님과 행자 재가불자.
- ▣ 교육장소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7-3 본원중 총무원

접수문의 : 02)391-4376. 010-9996-6340